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30 권 15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118)	봉헌 (212)	성체 (180)	파견 (123)
---------	----------	----------	----------	----------

제1독서 | 창세 12,1-4ㄱ

화답송 | 시편 33(32),4-5,18-19,20과 22(◎ 22 참조)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2독서 | 2티모 1,8ㄴ-10

복음환호송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

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 마태 17,1-9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3/15	이 그레이스	고 안나	박 다니엘
3/22	유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3/29	이 그레이스	김 헬레나	박 다니엘
4/5	이 그레이스	고 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05	\$45	\$6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론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15	김 마론/ 김 헬레나	3/21	유 요한/ 유 마리아
2/22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3/28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2/29	손 아놀드/ 손 쟈마	4/4	홍 마르코/ 홍 아네스
3/7	이 글라라/ 장 글라라	4/11	김 요아킴/ 고 안나
3/14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4/1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3 월 5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 시

오는 임원회의는 3 월 1 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둘째 주 제외)

매주 미사후 친교실에서 성경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년도 미사 책값 안내 (\$50)**

올해 미사 책값을 그레이스 자매님께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년도 세금 보고용 영수증 신청**

세금 보고용 교무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장님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마르타 자매님을 위한 기도

지난 수요일 김마르타 자매님의 장례미사에 수고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형제, 자매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보다 먼저 하느님 품으로 가신 김마르타 자매님을 위해 기도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함께 오르는 산

-안현모 리더아 | 방송인-

최근 3박 4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다녀왔습니다. 촬영차 내려간 김에 조용히 혼자 글도 쓰고 휴식도 취할 겸 며칠 더 머무르다 왔지요. 내려갈 때는 꽤 가벼운 마음으로 향했습니다.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에서 좋은 공기 마시며 건강을 충전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서울로 돌아올때는 쫓기듯 걸음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텅 빈 시외버스에 마스크로 무장을 하고 앉아 시계만 보며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새 온 나라의 분위기가 심각하게 바뀌어, 힐링은커녕 오로지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상치 못한 마무리였죠.

인생을 산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아름답고 단정하게만 보였던 산이, 막상 입산해 보면 갑자기 돌부리가 툭 튀어나와 발을 찌르기도 하고, 움푹 파인 구덩이가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기도 하듯, 인생도 실제로 살아보기 전까진 앞날을 속속들이 알거나 미리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치 제가 강원도 여행을 처음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마쳤듯, 인생의 여러 산들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산하게 될지는 감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에 올라 힘차게 '야호'하고 외치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내려올 수도 있고, 다시는 발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험레벌떡 도망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것이 쉬운 등산이든 힘든 등산이든, 우리가 그 산을 오를 때는 늘 하느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특별히 더

어렵고, 낯설고, 위험해 보이는 산행의 한가운데에 있지만, 그분은 분명 우리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난관이 펼쳐질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감히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의 시야는 그저 한정적일 뿐이지만, 그럴수록 주머니 속 신앙이란 나침반을 꼭 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등반은 나 하나가 아닌, 너무나도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같은 산과 분투하고 있습니다. 어찌면, 각자 따로 따로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헤쳐나가는 뜻은 아닐지 헤아려봅니다. 자주 단절돼 있고 갈라져 있던 우리들에게, 이번만큼은 잠시 같은 비를 맞고 같은 흙을 밟으며, 서로가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 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넘어진 형제자매에겐 손을 뻗어 주고, 물에 빠진 형제자매에겐 나뭇가지를 내어주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혹여 빗줄기가 너무 사나워서 때로는 뿔뿔이 저마다의 동굴 속에 몸을 피해야 할지라도, 결국엔 모자란 물리적 접촉의 자리를 정서적 교감이 대신하고, 무엇보다, 부족했던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커다란 산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하느님. 그분의 발뒤꿈치만 보며 길을 잃지 말고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자세히 보면, 발밑에 돌아나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어느덧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복음묵상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서 41:13-